

農家調查結果

農政施策의 效果的 遂行과 弘報

KBS TV 農家放送 視聽反應調查를 중심으로

權 和 燮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崔 益 秀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I. 머리말

現代社會를 가리켜 흔히 “情報의 時代”라고 말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著書 “제3의 波濤”(The Third Wave)에서 文明發展의 轉機를 農業革命과 產業革命,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情報革命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제3의 파도인 情報革命에 亞하히 對應하느냐가 各國의 經濟·社會的 地位를 근본적으로 規定짓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플러가 지적한 情報의 革命이란 각종 電子通信技術과 컴퓨터 技術의 結合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기존 通信技術의 質과 量 兩面에서의 劇的인 發展을 지칭한다. 이 部門에 있어 우리나라는 歐美 先進國과 日本에 懸격히 뒤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社會生活의 必須要件의 하나로서 情報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은 매우 높으며 情報의 效果的 傳

達과 活用은 經濟·社會 開發의 한 前提條件이 되고 있다.

農政施策의 效果的 遂行에 있어서도 이 點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른 대부분의 社會制度(social institutions)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情報媒體(mass media)들도 都市에 偏在되어 있고 그들의 情報活動도 都市民 爲主의 性向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狀況 하에서 韓國放送公社(KBS)는 1981년 7월 1일을 기해 KBS 제 1 TV를 통해 定規放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일 상오 6시 30분(81년 12월 1일부터 상오 6시로 앞당김)부터 30분간 “앞서가는 農漁村”을 放映하기 시작했다. 흔히 “農家放送”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는 政府의 農政施策을 신속히 農漁村에 알리고 새로운 營農技術을 포함한 각종 農水産 情報과 成功事例를 소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農漁村 開發을 促進하자는 政府의 意志에 따라 마련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있기 이전에도 우리 放送媒體들, 특히 라디오를 통해서도 유사한 農漁村 프로그램을 放送하여 왔다. 그러나 KBS 제 1 TV의 “앞서가는 農漁村” 프로그램은 政府와 農漁村 관계기관 및 단체, 그리고 媒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하는 종합적인 정규 農漁村 TV 프로그램으로서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農政施策 弘報에 있어서 매스콤의 役割

1. 新聞媒體의 農水産記事 報道傾向

70年代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經濟가 급속한 工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전체 國民經濟 안에서 農水産 部門의 比重은 상대적으로 후퇴를 강요당해 왔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 따라 우리 매스콤의 經濟關係報道 역시 製造業과 貿易을 포함한 서비스 部門에 집중되고 農水産 部門에 관한 報道는 量과 質 兩面에서 상대적으로 下位關心事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研究分析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筆者가 81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全國紙 8개, 地方紙 10개 등 포함 18개 日刊紙를 개괄적으로 分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했다.

(1) 經濟뉴스를 報道하는데 있어서 地方紙들이 農水産관계 기사를 다수 取扱하고 있는데 비해 全國紙의 農水産관계 기사 掲載率은 지극히 낮았다.

(2) 地方紙와 全國紙를 불문하고 紙面配列과 段數 등 編輯態度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農水産 관계 기사를 不位關心事로 取扱하는 경향이었다.

(3) 全國紙와 地方紙가 農水産관계 기사를 1~2면의 主要 政策記事로 다루는 경우에도 그것은 一回的·斷面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다.

(4) 年初의 改閣에 앞서 우리 經濟政策의 主要爭點이었던 景氣活性化 施策에 있어 政府의 政策當局者와 함께 言論界 역시 農水産 部門에 대해서는 거의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農水産 部門에 대한 우리 言論機關들의 이러한 報道傾向은 農水産政策을 社會的인 關心事에 있어서 下位이슈(minor issue)로 떨어뜨렸고 農漁民들의 社會的 剝奪感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言論 媒體 자체에서는 地方紙에서 重要記事로 다루어지고 있는 問題마저 全國紙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無視되는 現象(예를 들어 지난해 年末의 農協 貨出金 回收과 그에 따른 農村資金梗塞 문제)을 포함해 農漁村관계 보도에 있어 兩者 사이에 뚜렷한 二元化現象을 초래했다(全國紙와 地方紙의 이러한 차이점은 媒體의 所在地의 차이와 함께 1980년 12월의 言論統廢合에 따라 全國紙의 地方駐在記者 撤收에 따라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現象은 農漁村과 農水産관계 인사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금년부터 착수되는 제 5차 經濟社會開發 5개년 計劃이 社會 각 部門과 階層 간의 均衡的 發展을 基本指針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當面 問題인 農工間的 不均衡 發展과 都農間的 生活水準 내지 生活環境의 커다란 隔差를 緩和·解消하는데 言論機關이 보다 적극적인 關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農政施策 傳達過程에서의 매스콤의 役割

農漁村 開發政策의 效果的 遂行을 위해서는 農政施策의 신속한 弘報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

表 1 農政施策傳達 매체

구 분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공직자	부락민	무응답	계
응답자수	796	677	170	122	39	12	1,816
비율(%)	43.8	37.3	9.4	6.7	2.1	0.7	100

表 2 年度別 農政施策 弘報媒體의 變化

調査年度	단위 : %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매스컴	스업	선	이장	및
1979	26.4	36.2	18.9	81.5	16.5	2.0	—	—
1980	42.3	31.5	16.5	90.3	6.5	3.0	0.2	—
1981	43.8	37.3	9.4	90.5	6.7	2.1	0.7	—

와 관련하여 當研究院 農政輿論調査室은 “農民意識構造變化에 관한 調査”(1979년 이래 3차례 實施)의 일환으로 農村의 農政施策 認知經路를 조사했다(〈表 1〉 및 〈表 2〉 참조).

이에 따르면 農民들이 農政施策을 알게 되는 經路는 매스컴이 90.5%(1981)로 절대적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는 TV와 新聞이 각각 43.8%와 37.3%로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1979년에 18.9%를 차지했던 라디오의 比重이 1980년에는 16.5%로 떨어지고 1981년에는 9.4%로 크게 후퇴한 반면 TV의 比重은 1979년의 26.4%에서 80년에는 42.3%로 대폭 늘어나고 1981년에는 43.8%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추측컨대 이 점은 80年代에 들어오면서 農村에서의 TV普及이 加速化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調査期間 중 農政施策 傳達過程에서의 新聞의 役割은 다소의 起伏이 있으나 시종 30%帶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調査에서 農村의 TV普及率은 黑白 텔레

表 3 耕作規模別 TV 保有率

구 분	영세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응답자수	149	615	769	283	1,816
TV 보유자 수	142	595	756	280	1,773
보유율(%)	95.3	96.8	98.0	99.0	97.6

비전의 경우 95.9%로 나타나 사실상 飽和點에 가까와졌으며 컬러 텔레비전의 경우도 4.7%의 普及率을 나타냈다(表 3).

※ 文公部の 最新 TV登錄 統計에 따르면 도시의 TV 보급율은 97.5%, 郡 이하 농촌의 보급율은 71.5%로 나타났다. 두 數值 사이의 차이는 本調査對象인 當研究院 通信員들의 生活水準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에 연유할 수도 있으나 通信員 가운데 경작면적 1ha 미만의 영세농의 TV 보유율이 95.3%였다는 점에서 TV 登錄과 실제 TV 보유의 차이도 한 要因인 것으로 생각된다.

Ⅲ. 農家放送 視聽反應 調査結果

1. 調査概況

1) 調査目的 : KBS 제 1 TV를 통해 放映되고 있는 農家放送 프로 “앞서가는 農漁村”과 “잘 살아 보세”에 대한 農村住民들의 視聽패턴과 反應을 파악, 同 프로의 改善과 나아가 農政施策의 效果的인 弘報에 寄與하기 위함.

2) 調査期間 : 1981. 10. 20~11. 20(1개월간)

3) 調査方法 : 設問紙에 의한 우편조사

4) 調査對象者와 應答率 : 當研究院의 現地通信員 2,18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應答者는 1,816명, 應答率은 83.2%였다.

5) 分析方法 : 應答內容을 SPSS에 의거, 電算處理했으며 “앞서가는 農漁村”에 대한 應答內容은 81년 7월 중 실시한 1차 反應調査 結果와 比較分析했다(단 1차 調査에서는 當研究院의 現地通信員 외에 일반 農民과 漁民 및 농촌지도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2차 應答者의 學歷別 및 經營規模別 分布는

表 4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구 분	단위 : 명				계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응답자 수	357	665	709	85	1,816
TV 보유자 수	346	651	695	81	1,773
보급률(%)	96.9	97.9	98.0	95.3	97.6

表 5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구 분	단위 : 명				계
	영세농	소농	중농	대농	
응답자 수	149	615	769	283	1,816
TV 보유자 수	142	595	756	280	1,773
보급률(%)	95.3	96.8	98.0	99.0	97.6

〈表 4〉 및 〈表 5〉와 같다.

2. 農村住民들의 TV 視聽傾向

1) 視聽時間帶와 視聽時間

農村의 하루 生活은 都市보다 한층 일찍 시작되어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 農村住民들은 都市民들에 비해 일찍 일어나 活動을 시작하며 또한 都市民들에 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따라서 農村의 TV視聽時間帶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번 調査에서는 農村 住民들의 時間帶別 TV視聽性向은 調査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타 目的의 農村出張 중에 이 點에 關係 개괄적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農民들, 특히 家長과 成人의 경우에는 夕暮 靄이는 일을 포함해 農村의 營農 및 家事活動이 忙동이 뜨기 이전부터 시작되므로 早朝 TV視聽은 事實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農村住民들의 하루 TV視聽時間은 家長(응답자)의 경우 155분, 가족 전체는 237분으로 나타났다(〈表 6〉 참조)이 시간은 대체로 하루 7시부터 9시 사이에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2) TV채널 選擇權者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자기 다른 2개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을 때 누구의 의사에 따라 채널을 선

表 6 學歷別 TV 視聽時間(1일 平均分布)

구 분	단위 : 분				명 均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응답자	157	160	152	135	155
가족전체	240	243	232	220	237

表 7 TV 채널권자

구 분	경영주	부인	자녀	부모	다수 합의	단일채널지역	무응답	계
인수(명)	631	37	374	250	197	45	239	1,773
비율(%)	35.6	2.1	21.1	14.1	11.1	2.5	13.5	100.0

表 8 選好프로

구 분	경 영 주	가 족(공통)
뉴 스	31.1	17.6
구 분 없 이	19.7	13.0
9 시 종 합 뉴 스	4.8	1.8
일 기 예 보	4.5	1.8
영 농	22.8	7.7
앞서가는 농어촌	9.3	2.2
잘 살 아 보 세	6.8	2.5
전 원 일 기	1.5	1.4
해 설 좌 담	1.1	0.5
스 포 츠	8.8	7.8
교 양 퀴 즈	0.9	1.8
연 속 극	22.8	33.9
구 분 없 이	8.4	13.9
사 극	6.2	6.6
대 명	3.6	3.1
현 대 극	6.3	13.4
길	3.2	5.5
사 랑 합 시 다	1.5	3.3
단 편 극	1.2	2.6
반공, 수사물	6.3	11.5
수 사 반 장	1.5	2.5
시 호 인 간	1.5	2.5
쇼·코 메 디	2.4	8.0
영 화	2.1	2.3
아 동 극	0.5	6.3

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6%는 스스로(家長) 결정한다고 대답했고 그 다음은 자녀(21.1%), 부모(14.1%), 다수 합의(11.1%)의 順으로 나타났다(〈表 7〉).

3) 選好프로

農村住民들의 選好프로를 알아보기 위해 家長(응답자)과 家族 모두가 즐겨 보는 TV프로를 각각 3가지씩 記入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表 8)과 같다.

이에 따르면 經營主, 즉 家長은 뉴스(31.1%)를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은 營農관계 프로와 연속극(각각 22.8%)였고 家族 전체로는 연속극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뉴스(17.6%)와 反共 수사물(11.5%), 아동극(6.3%)의 順으로 나타났다.

여타 목적의 農村調查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즉 농민, 특히 經營主들에게 농사 일을 마친 후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가를 물어 보면 그들은 예외없이 TV의 뉴스 프로를 시청하고 가족들과 한 두 편의 연속극을 본 후 잠자리에 든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V의 普及擴大와 더불어 農村의 생활 패턴에 중요한 變化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農村에는 이른바 “사랑방”이 있어서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농사 일과 부락 문제, 신변 사항 등을 주고 받았으며 이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서로간의 궁금증을 풀곤 했었다. 그러나 요즘 농촌을 둘러보면 이러한 사랑방 모임은 크게 퇴조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저녁 시간을 보낸다. 다시 말해서 TV가 사랑방을 대신해 정보획득의 주된 수단으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사랑방의 “복합적 雙方對話”가 TV와의 “一方對話”로 바뀌게 되었다.

3. “앞서가는 農漁村” 프로에 대한 反應

1) 放映認知 여부

1차 調查(81. 7)에서는 當研究員 通信員 가운

데 91.4%가 이 프로의 放映을 認知하고 있었으나 4개월 후에 실시한 2차 調查에서는 그 認知率이 94.6%로 높아졌다. 이는 TV 普及率 97.6%를 고려할 때 거의 전부가 앞서가는 農漁村 프로의 放映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視聽率

農村住民들의 選好프로 가운데 단일 프로로서는 “앞서가는 農漁村”이 9.3%로 가장 즐겨 보는 프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프로를 얼마나 자주 보는가를 알아 본 결과 26.3%는 매일 시청한다고 대답했고 61.5%는 가끔 본다고 대답해 이 프로의 시청자는 모두 8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7%가 전혀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뿐이다(表 9).

表 9 視聽率

단위 : %

區 分	二 次 調 査					二次調査
	農 民	漁 民	指 導 員	平 均	通 信 員 (통신원)	
거의 매일 본다	22.8	25.2	48.0	27.6	16.2	26.3
가끔 본다	66.5	66.4	50.4	63.5	62.4	61.5
小 計	89.3	91.6	98.4	91.1	78.6	87.8
전혀 안 봄	10.7	8.4	1.6	8.9	21.4	12.2

3) 視聽 않는 理由와 放送時間帶에 대한 意見

가끔 본다는 응답자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理由를 물어보았는데 이 프로가 放映되는 시간(새벽 6시 30분. 이 조사가 끝난 후 81. 12. 1 부터 KBS는 放映시간을 새벽 6시로 앞당겼다)에 바쁘거나 시간이 알맞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85.8%로 압도적이었으며 내용이 빈약해서라는 대답이 5.9%, 피곤해서가 2.4%, 기타가 5.9%였다(表 10).

또 조사 당시의 放映時間帶(새벽 6시 30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44.0%가 적당하다고 대답했고 56.0%는 부적당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재의 放映時間帶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表 10 視聽하지 않는 理由

區 分	단위 : %					
	一次 調査			二次 調査 (통신원)		
	農民	平均	通信員	가끔보 는이유	전혀안보 는이유	
방영시간에 바빠서	92.7	89.0	92.7	61.8	57.6	
시간이 좋지 않아서				33.1	28.2	
피곤해서	2.3	3.3	1.8	1.5	2.4	
내용 빈약	3.9	3.8	5.2	3.3	5.9	
기타	1.1	3.9	0.3	0.3	5.9	

表 11 現放送時間에 對한 評價

區 分	단위 : %					
	一次 調査					二次調査 (통신원)
	農 民	漁 民	指導員	平均	通信員	
適 當	52.9	60.8	71.0	57.0	43.9	44.0
不適當	47.1	39.2	29.0	43.0	56.1	56.0

表 12 希望하는 放映時間(二次調査)

區 分	단위 : %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기타	計
	希望者數	20	194	478	137	65
比率(%)	2.1	19.9	49.0	14.1	6.7	100

※ 현 放映時間 適當하다는 應答者 제외

응답자들의 希望 時間帶를 물어본 결과 91.7%가 저녁 시간을 희망했고 그중 49%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를 희망했다. 저녁 7시~10시 사이를 희망한 응답자는 모두 83%였다(表 11) 및 (表 12).

4) 프로 內容에 對한 評價 및 農民들이 바라는 放送內容

“앞서가는 農漁村”프로의 內容에 대해 응답자의 거의 전부인 95.9%는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대답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內容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는 4.1%에 불과해 이 프로가 農村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13).

農民들이 희망하는 放送內容과 프로 製作形式

表 13 放映內容의 效果에 對한 評價*

區 分	단위 : %					
	一次 調査					二次調査
	農民	漁民	指導員	平均	通信員	(통신원)
도움이 된다	79.4	81.6	90.7	81.7	70.7	76.5
도움이 될 것 같다	14.8	13.6	6.8	13.2	18.0	19.4
그저 그렇다	4.1	2.4	2.0	3.6	5.1	3.2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	2.4	0.4	1.5	2.0	0.9

* 無應答者 제외

表 14 放映希望內容

區 分	단위 : %						
	營農技術 敎育	農產物 價格流通 情報	營農施 策解説	先進國 農業紹 介	成 功 例	健 康 理 理	其他
構成比	32.7	23.6	18.9	9.4	7.2	3.4	4.8

表 15 希望하는 放送形式

區 分	단위 : %					
	1 次 調査					2次調査
	農 民	漁 民	指導員	平 均	通信員	
對農民現地取材	49.0	51.2	37.5	47.0	52.7	54.3
專門家강의해설	21.0	26.1	22.8	21.8	23.6	21.1
對談問答式	18.0	17.4	16.0	17.6	13.4	12.2
綜合 構成 形式	12.0	5.4	23.7	13.6	10.3	12.4

* 無應答者 제외

은 (表 14)과 (表 15)와 같았다.

4. “잘 살아보세” 프로에 對한 反應

KBS TV는 저녁 7시 20분부터 10분간 “잘 살아 보세” 프로를 放映하고 있는바 그에 관한 農民들의 反應을 조사해 본 결과 “앞서가는 農漁村”프로에 對한 反應과 아주 흡사했다. 즉 프로 認知率은 90.1%, 視聽率은 거의 매일 본다가 27.6%, 가끔 본다가 59.3%였고 전혀 안본다는 13.1%에 불과했으며 프로 內容에 對한 評價는 도움이 된다가 62.9%, 도움이 될 것 같다가 24.4%였고 부정적인 대답은 6.6%에 그쳤다.

그러나 이 프로가 극히 짧은 10분 짜리 프로이므로 응답자의 65.2%는 放映時間이 너무 짧다고 대답했고 적당하다는 대답은 그 절반이 안되는

30.6%에 불과했다. 반면에 放映時間帶에 대해서는 가장 적당하다가 32.0%, 적당하다가 50.1%로 응답자의 82.1%가 현재의 放映時間帶를 환영했고 부적당하다는 대답은 15.5%(무응답 2.4%)에 그쳤다.

Ⅳ. 맺음말—調查所感과 改善方向

모든 政府政策도 그러하지만 특히 農政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해서는 農政施策의 광범한 弘報를 통해 農村住民들의 적극적인 參與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情報媒體들이 都市에 偏在되어 있고 그들의 情報傳達活動이 다분히 都市民 爲主로 運營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官營放送인 KBS가 정규 프로로 農家放送을 시작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특히 KBS 제1 TV를 통해 새벽 6시에 放映되고 있는 “앞서가는 農漁村” 프로는 그 製作에 農水産部和 산하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프로 內容도 農事 및 水産情報로부터 營農 및 營漁技術과 成功事例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프로의 放映時間帶가 새벽 6:00~6:30이라는 점은 農村의 生活 패턴과 어긋나 그 視聽率을 크게 制約하고 있다. 비록 조사 당시의 視聽率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나 이것은 放映時

間이 새벽 6:30~7:00이었을 때의 조사 결과이므로 放映時間이 30분 앞당겨진 현재의 시청률은 그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사 시기가 계절적으로 營農活動이 거의 끝난 10월 하순이었으므로 만약 봄부터 가을철에 같은 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오늘날 農村의 TV 普及率は 평균 95.3%, 大農의 경우는 99%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모든 農村住民이 TV와 接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農政施策 傳達過程에서 TV는 新聞보다 월등히 높은 役割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컬러TV의 普及이 진행되면서 그 比重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農政施策弘報에 있어서 TV의 重要性을 端的으로 말해준다. 현재 農民들은 農家放送과 함께 뉴스 프로를 통해 政府의 農漁村施策에 관한 情報를 획득한다. 그러나 뉴스 프로는 印刷媒體인 新聞과 마찬가지로 非農村 部門에 너무나 置重되어 있고 農漁村 관계 情報는 간결히 다루어지고 있어 農民들의 情報慾求와 農政當局의 弘報必要에 크게 未洽하고 있다.

그러므로 農政施策의 효과적인 弘報를 위해서는 일반 뉴스 프로와 함께 이른바 TV의 “프라임 타임” 時間帶에 본격적인 農家放送 프로를 新設하는 것이 農村住民들과 農政當局의 입장에서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